

부두 150m 앞 돌연 진로 바뀌 돌진 ... 베테랑 도선사들은 뭐했나?

여수 낙포동 원유 유출사고 '미스터리'

지난 31일 발생한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 원유 유출 사고 규명이 지 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국가 방제(防除) 능력(사고 발생 사후에 제거할 수 있는 기량의 양)을 1300t에서 1만 6600t으로 늘리는 등 조치를 내렸지만, 경찰과 방제 당국은 사흘이 지나도록 방제는 커녕, 원유 유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원인은=2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2월 2일 오전 9시30분경 싱가포르 선적 16만 4000t급 유조선이 접안을 하기 위해 부두에 접근하던 중 원유 하역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인 '돌린' 3기를 들이받고 원유하역배관과 잔고를 부수면서 비롯됐다.

도선사 2명의 역할

밝히는 것이 핵심

해상교통관제소

해무사 과실 여부도 수사

경찰은 GS칼텍스 측의 목격자와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유조선이 부두를 150m 앞두고 갑자기 진로에서 왼쪽으로 약 30도가

람 벗어나 4노트(knot) 이상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 당시 유조선은 그러나 통상적 속도보다 빠르게 전진, 두 해상 잔고 사이를 지나 원유 하역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인 '돌린' 6개 중 3개를 들이받고 잔고와 원유하역 배관을 부수고서야 정지했다. 유조선이 접안을 할 때에는 속도를 2노트 이하로 줄여 정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접근한 4대가 오른쪽에서 천천히 밀어서 접안하는 게 일반

적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현지 사정에 밝은 도선사 2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여수항은 도선법에 따른 '강제 도선구역'으로 반드시 도선사를 태워 접안을 해야 한다. 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키를 잡고 부두에 접안해 제품을 하역한 뒤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유조선에 탄 도선사 2명은 베테랑으로 알려졌다며 사고 1시간30

분 전 인근 섬인 대도에서 유조선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도선사가 일반적인 접안 항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대형 유조선이 접안을 시도할 때에 전진하다가 속도를 줄이려 후진을 시도하려다 탄력에 의해 직진하게 되는 직진 타력에 대해 도선사가 오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놀랐고? 또 다른 과실은?=>

경찰은 이의 여수항의 연안해상교통 관제소(VTS)와 부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무사 등의 과실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선박을 관리해야 하는 GS칼텍스 측이 이날 사고 직후 30분이 지난 오전 10시5분경 여수항만 해상교통 관제센터(VTS)를 거쳐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늦장 신고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때려주고 싶은 경찰

40대 남편 집간 정신지체장애 아내 찾아 삼만리

남치·감금 성폭행 ... 3주 만에 범인 직접 찾아내

경찰 미적 수사 원망 "불쌍한 아내를 어찌하리오"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라진 정신지체 아내를 찾아 혼자 광주까지 왔으나 이미 범죄 피해자가 된 뒤에야 아내를 찾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남편이 끈장 가출신고를 한데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가출자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2년 전 정신지체 2급인 아내 B(20)씨를 신부로 맞았다. 일용직으로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던 그에게 B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8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괴임에 넘어가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A씨도 알 수 없었다.

A씨는 이날 익산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뒤 119 지령실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나마 행복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던 A씨는 소방서에 의뢰해 아내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소재지로 나타난 광주로 향했다.

A씨는 9일부터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주변 모텔·점집방에서 지내면서 아내를 찾아다녔다. 혹시 아내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건 아닐까 걱정돼 온종일 버스터미널에 머문 적도 있었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씩 아내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무게를 뒀지만 가출신고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감금 무소식이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집에서 가져온 아내의 일기장과 연애편지를 보면서 초조함을 달랬다.

A씨는 광주에 온 지 21일째인 지난달 29일 또다시 아내와 통화를 시도했고, 아내와 함께 있다는 정보(36)씨와 연결이 되면서 아내와 재회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씨가 약속장소에 아내를 바래다준 뒤 자리를 뜬 후 A씨는 아내로부터 천천벽격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정씨 등 3명의 괴임에 넘어가 집을 나온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의 집에 살면서 설거지·빨래 등 온갖 집안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부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를 검거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벌일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일 광주시 동구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갑오년 민주가족 합동세배'에 참석한 300여명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설연휴 교통사고·화재 등 잇따라

광주·전남 8명 사망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와 화재와 변사 등이 잇따랐다.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광주에서는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2명 다쳤다고 전남에서는 69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경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방면 곡성 휴게소에서 이모(여·53)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휴게소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모(40)씨와 손씨 동생(33)을 치고 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멈췄다.

이 사고로 손씨 형제가 숨지고 손씨 딸(21)과 아들(12), 이씨와 이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이모(50)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손씨 형제는 고향인 여수에서 설을 쇠고 각각 가족들과 함께 귀갓길에 올랐다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 미숙으로 휴게소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1일 오후 5시50분경 담양군 담양읍 인근 도로에서 최모(51)씨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충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31일 새벽 4시10분경 강진읍 강진군청 인근 도로에서 오모(28)씨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라모(29)씨가 숨지고 오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변사 사건도 잇따라 1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모(41)씨 집에서 김씨 부인 A(32)씨가 목을 매 죽여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31일에는 밤 10시20분경 강진군 마량면 서중마을 선착장 인근 바다에 김모(39)씨와 부인(39)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부인은 구조됐지만 남편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던 중 아내가 바다에 빠지자 남편이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일 새벽 2시40분경 강진군 칠량면 김모(65)씨의 장미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4개동(2640㎡)과 장미 500그루, 온풍기 등 소방서 추산 6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법, U대회 선수촌 뇌물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쓰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

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광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부부싸움 친정에 간 아내 찾아가 처갓집서 행패

부부싸움 뒤 친정에 가 있는 아내에게 설을 쇠러 고향에 가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모(43)씨는 지난 30일 밤 9시50분께 자신의 장모 김모(여·64)씨의 집을

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광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부부싸움 뒤 친정에 가 있는 아내에게 설을 쇠러 고향에 가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모(43)씨는 지난 30일 밤 9시50분께 자신의 장모 김모(여·64)씨의 집을

찾아가 장모와 아내 이모(여·39)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벌였다는 것. <전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친정에 가 있는 아내에게 설을 앞두고 고향집에 같이 가자고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술집에 화가 많이 났었다"고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 1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14566	4	광양시 옥룡면 동리리 1147-1 1451㎡	임야	76,903,000 76,903,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5	동소 1149 982㎡ 동소 1150 1220㎡	답	127,716,000 127,71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	동소 988-2 579㎡	전	33,5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4610	1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200-5 339㎡ [현황외]	전	5,7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부모지, 연고이상분묘소재
[자동차, 중기]					
2013타경 13242	1	사용본거지: 전남 광양시 향남7로 52 [도이]	자동차	1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	등록번호: 전남82비7175 차량: 한복4031 트랜스엔진사시 연식: 2011	자동차	1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013타경 13259	1	사용본거지: 동소 52 [도이+통]	자동차	9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	등록번호: 전남98사8035 차량: Actros 연식: 2009	중기	9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013타경 13792	1	사용본거지: 전남 광양시 광양동 덕례길 등기	중기	43,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	등록번호: 전남08가7771 기종: 모터사이클 연식: 1994	중기	43,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014타경 915	1	사용본거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승계로764	중기	7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2	등록번호: 전남98사19981 차량: FH126X2트럭 연식: 2005	중기	70,000,000	보관장소: 순천시 수자동차매상사
[기타]					
2013타경 16098	1	선착항: 부산광역시 선박의종류와명칭: 기선명칭: 선설: 강 총톤수: 1384톤 기관의종류: 유수: 디젤발전기 1기 추진기의종류: 유수: 나선식 추진기 1개 진수년월일: 1994년11월	선박	2,678,780,000 2,678,780,000	정박항: 여수시수정동도외항역 700m떨어진곳, 2014타경212 [중복]

● 공고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매수인이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때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공채의 경우(민사집행법 제103조) 할사에 따른 매수신청과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채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4. 2. 1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2. 24.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공고에 반하지 기일입찰방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부담에 동의한 후 입찰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입찰금과 보증금의 합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② 2인 이상 공모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입찰자격확인서와 각자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경합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매수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매수인신청인과 차순위매수인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담부담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등기 기입을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주민등록전환발령통지서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 결정, 행정처분 및 등기등 록이 이루어진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는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 목 적 은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부터 먼저 주민등록인신고를 하고 매각이 개시되고 있는 임야이다. 사업지속성행위 관련 임야인인 것을 알리는 그 임야보증금에 매수인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야인임을 증명해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허가 주지 신청서와 매각대금 결정서, 행정처분 결정서 및 등기등 록통지서 등을 우편방편 인사집행(선정)과 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공고에 내거는 열람료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입찰 보증금 납부 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인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매수인신청과 동일한 날에 매각신청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지이용계획변경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한 물건명은 매각허가 전에 경매신청이 허가되기에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산포에 공고되는 물건의 최초 매각기일이 해당되는 물건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포공고에 따라 별도로 우편방편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허가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재판과도 동일하지 않으나 (이하)한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제공한 것으로서, 취소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무효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상선고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되는 물건의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면담해서 매각허가 결정의 공고나 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김선범
사법보좌관 김정권